

'자기의 땅에서 유배당한 자들'

[전시리뷰] 임승천의 《정지된 또는 부유하는》

국립차이나스

[정형탁 전시출판기획자]



▲ 임승천, <dream ship 3>, 혼합재료, 410×410×225cm, 가변설치, 2007

"국가를 다스리기에 가장 적합하고 공정한 사람들을 해마다 선출하는 공화국, 그리고 행정관들의 덕성이 곧, 그 나라 국민의 지혜로움을 증명하며 앙자가 서로 존중하는 공화국 말입니다. 그런 경우, 설사 불행한 오해 때문에 국민적 화합이 흔들린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어둡고 오류로 얼룩진 시대에도 절제와 상호 존중, 법률에 대한 공동의 경의는 계속 표출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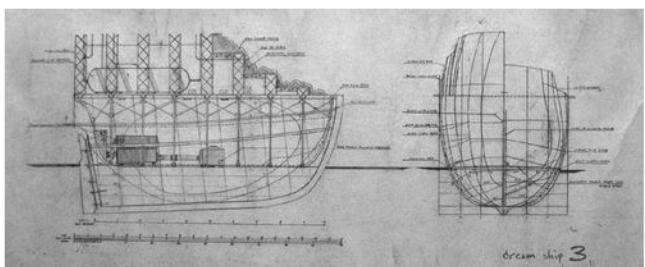
이는 프랑스 계몽주의를 이끌었던 천재 사상가 루소의 『인간 불평등 기원론』의 첫 장인 <제네바 공화국에 바치는 글>에 나오는 내용이다. 루소는 서한에서 한 나라의 국민과 국가와의 가장 이상적인 관계를 평의회 위원들에게 보낸다.

루소의 국가와 국민간의 신뢰 관계에 대해 소설가 이문구는 『오자룡』에서 이렇게 훌난한다.

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FTA가 타결되는 즈음, 그리고 출퇴근마다 보게 되는 판교 근방의 그 엄청난 복도저地道와 국토의 속살을 파대는 살풍경을 보고 있었던 즈음이 아니라면 임승천의 개인전은 내게 깊이 향했을 것이다. 왜냐? 제도과 개인, 국가와 국민, 개발과 보존, 이주와 정체성 등의 추상적 개념은 이미 미술판에서 90년대 일상과 더불어 많이 제기되어 온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임승천의 작품에서 느껴지는 회색빛 디스토피아의 냄새는 지금, 이곳의 진경(眞景)을 매우 세밀하게 더듬는다는 점에서 향기롭다. '미국식 대세'거나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미국에게) 개방이 많이' 되어 글로벌 현지 생산 라인을 구축한 대한민국이, '세계적 대세' 운운하거나 '개방을 통한 경쟁력'을 외치는 아둔한 FTA역사관으로 전도되는 것과, 주택보급률 100%가 이미 넘은 상황에서 주구장창 지어대는 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을 도대체 어떤 사회현상으로 바라보아야 할지 모르는 '못난 백성'들에게, 그의 작품은 '초목도 떠다 팔아먹을 도적놈들'이 판을 치거나, '정지되거나 부유하여' 결국 어떤 곳에서도 편안히 정주하지 못하는 이주민만이 사는 'The Republic of Korea'란 진경화(眞景畫)로 읽힌다.



임승천, 판화지에 드로잉

조각의 전유

임승천 개인전 《정지된 또는 부유하는》(모로갤러리, 3.28-4.3)은 마치 88올림픽의 화려한 전경(全景) 뒷골목에서 행해진 상계동의 강제철거가 떠오르기도 하고, 줄줄이 봉천동, 신림동, 구로동, 아현동, 미아리, 수유리 풍경들이 한 장씩 혹은 여럿씩 겹쳐지기도 하였다.

벽면에 설치된 가상의 유토피아를 향한 항해일지는 '3'이라는 가장 이상적인 의미를 마음에 두고 출발한다. 꿈과 이상, 성장과 창조의 '3'이라는 숫자는 희망의 마지막 동력이지만 어차피 이 항해는 '없는(ou) 장소(topos)'를 향해 있다. 꿈과 이상의 상실은 선두(船頭)가 세 개인 선박의 설계도면을 통해 더욱 구체화되고, 이는 다시 전시장 중앙의 입체 작품으로 이어져, 세 개의 뱃머리 모양을 한 선박은 대한민국의 보편적 달동네 집들을 태우고 있다. 일견 단단해 보이는 시멘트 덩어리처럼 보이는 이 입체작품은 사실 가벼운 스티로폼으로 제작되어 '장중하고 거대한 조각'이라는 개념을 전유(appropriation)하면서도 현실의 리얼리티를 되살린다는 점에서 전통적 조각 개념에 일격을 가한다. 그리고 그 편치는 단순히 작품의 형식과 장르에게만 짭을 날리지 않고 우리네 현실의 리얼리티에게도 한방 먹인다. 어차피 개발과 계발에 만 물두한 나라에서 국민이 정주할 곳은 없다고 작품은 말한다. 그래서 이 배는 어차피 없는 곳을 향하고 있기에, 그리고 어차피 없는 곳은 갈 필요도 없기에 정박되어 있거나 현실이라는 수면에서 제자리에서 부유할 뿐이다.

또 하나의 식민화

도시에서 이주당한 도시빈민들, 자기네 터전에서 쫓겨난 실향민들이 선원인 이 배는 영원히 현실이라는 밀총에 낚을 내리고 있다. 그들이 현재 밟고 있는 땅은 애초 그들이 원했던 곳이 아니다. 그건 흔들거리는 배 위에서 아무데도 나아가지 못하고 서서 편두통을 앓는 심산 한 삶일 뿐, 그들이 그 곳을 떠나 새로운 곳을 가기에 현실이라는 밀총은 너무나도 견고하여 낚을 들어 올릴 수도 없다. 자기 땅이지만 자기 땅이 아닌 사람들, 자기의 땅에서 유배당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움직일 수도 없는 배 위에서 온종일 멀미를 해대는 것일 뿐이다. 스티로폼처럼 한없이 가벼운 현실일 수도 있지만 스스로 유폐시킨 욕망은 이주보다 정주에 익숙하다.

임승천의 작품에 희망이라는 허구는 보이지 않는다. 어디에도 갈 수 없는 출입구가 없는 배 위에서 누구와도 얘기할 수 없는 대문 없는 집들은 자신이 자신의 땅에서 스스로를 이산화시키고 식민화시킨다. 슬프디 슬픈 현실을 희망과 연대로 표현하기에 지금 우린 너무나 힘겨운 21세기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를 건너고 있다.